

창덕궁 전각권역의 해설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김충식* · 장지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교수 · **남양주시 도시건축과 서기보

A Study on Improvement of Commentary Program on the Building Concentration Area of the Changdeokgung Palace

Kim, Choong-Sik* · Jang, Ji-Hee**

*Professor, Dept.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Local Civil Servant, Dept. of Green Tract of Land Affiliation, Namyangju City

ABSTRACT

This study would suggest a measu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mentary program on the building concentration area of Changdeokgung Palace.

In the process of the survey, the researcher attended the commentary site and tape-recorded commentaries two times. The researcher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times and contents of the tape-recorded commentaries and evaluated their appropriateness, including historicity and connectivity to the site. In addition, the researcher figured out the commentaries and the visitors' movements through drawings and field surveys and analyzed the locations and conditions of the main facilities.

Through a field survey and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 commentaries included the facts and anecdotes about the buildings, the related figures and history.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re were very insufficient commentaries on the buildings arranged according to the commentary movements, the outside space, in particular, the traditional landscape facilities. In addition, it was found out that there are areas that would need commentaries and opening for viewing.

A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mmentary program was drawn up based on the analysis. New commentary points were added, and the commentaries of the outside space of the area and the traditional landscape facilities could improve through modifying the existing commentaries. With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the time required was calculated through reading aloud at a speed the same as the existing commentary speed. Through this, it was found out that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could be implemented within one hour, the same as the present commentary program.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that it provided a measure for practical improvement that could provide the visitors with quality commentary information and more interesting experience.

Key words: Commentator, Movements, Placeness, Required Time, Traditional Landscape Facilitie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창덕궁의 전각권역을 대상으로 건축과 조경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과정에서 해설 현장에 연구자가 참여하여 2회의 녹취를 시행하였다. 녹취자료를 통해 해설 시간과 내용을 분석하고 사실성과 현장과의 연계성 등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설 및 관람 동선을 파악하고, 주요 시설물의 위치와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건물과 이와 관련된 인물, 역사에 관한 사실과 일화가 해설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설은 1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설 동선에 따라 배치된 건물과 외부공간 특히 전통조경시설에 관한 해설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해설과 관람 개방이 필요한 구역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을 기반으로 해설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해설지점을

* **Corresponding Author** : Jang, Ji-Hee, Civil Servant, Dept. of Urban Architecture, Gyunchun-ro 1037, Byeollae-dong, Namyangju-si, Gyeonggi-do, 12112, South Korea, Tel.: +82-2-590-8075, E-mail: qaz0981@naver.com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해설을 수정해서 건축물, 외부공간, 전통조경시설의 해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에 대해 기존 해설의 속도로 낭독을 실시하여 소요시간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개선안이 현행 해설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로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해설 정보와 보다 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소요시간, 이동 동선, 장소성, 전통조경시설, 해설사

I. 서론

문화재청은 2010년 5월부터 창덕궁을 비롯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 및 생태적 보존 측면을 고려하여 휴궁일을 제외하고 자유 및 제한관람 제도를 시행하여 관람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4대 궁궐의 전각은 기본적으로 자유관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복궁 경회루는 4월~10월의 기간 동안 매 회당 최대 100명을 정원(인터넷 사전예약 80명, 외국인 전화예약 20명)으로 한국어로 1시간 이내에서 제한관람을 시행하고 있다. 창덕궁 후원권역은 모든 일자에 회당 최대 100명을 정원(인터넷 사전예약 50명, 현장접수 50명)으로 제한관람을 시행하고 있다.

4대 궁궐의 해설은 창덕궁의 해설사, 자원봉사 해설자, 여행사 가이드, 체험학습 지도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덕궁의 해설사는 한국어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제공한다. 이처럼 다양한 해설사와 해설활동, 해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설의 정확성이나 사실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궁궐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해설, 교육, 관람 및 관람시설에 관한 연구가 주로 행해진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궁궐 문화유산을 이용하는 방문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거나 궁궐 관람 안내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한 것이 주된 연구 내용이었다. 해설에 관한 연구로 창덕궁을 대상으로 해설의 구체적인 방법, 계획이 관람객의 지각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설방법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지각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 또한 '내러티브'라는 기법을 적용한 해설방안을 제시하고 직접 시행해보았으나 전달력의 부족과 구체성의 한계를 발견하였다[2]. 최근에 창덕궁 후원의 현장조사와 해설 청취를 통해서 개선방안으로 창덕궁 후원 해설의 부족한 내용을 분석하였지만 실질적인 해설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3].

교육에 관한 연구로 창덕궁의 단체 방문자와 개별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기관과 단체에게 역사교육을 위한 장소로, 일반인들에게는 공원으로 인식되는 것과 방문 동기가 교육적일 때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파악하였

으며[4],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세계문화유산학습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적 관점에 주목하며 창덕궁에 관한 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다[5]. 이외에 창덕궁의 건물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콘텐츠를 제안하였다[6].

관람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궁을 방문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기대수준 및 관여도가 이용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7]. 스토리텔링, 고궁환경, 인적 서비스, 편의성, 고유성, 관람정보 등의 요인들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8],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9].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고궁 및 문화 프로그램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10], 경복궁을 대상으로 모바일안내 콘텐츠를 개발하였다[11].

선행 연구는 궁궐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해설, 교육, 관람 및 관람시설에 관한 연구가 주로 행해졌다.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주로 관람 안내시설 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관람 해설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다.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배경이 되는 해설에서 궁궐의 장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건물의 내부 공간을 개방하지 않는 궁궐의 관람 특성을 고려할 때 건축을 비롯해 조경요소에 대한 해설 상황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궁궐의 해설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는 구성요소의 비중과 정확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한국을 대표하는 궁궐 문화유산이며 자연환경과 건축물, 조경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창덕궁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문헌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해설 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범위는 창덕궁의 전각권역을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해설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전체적인 해설 활동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문화재청에서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사실적인 해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창덕궁 해설사의 관람해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창덕궁 해설사는 10여 명으로 운영되며 해설본을 준비하여 교육과 해설을 시행하고 있으나 외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녹취와 채록을 시행하였다. 현장조사는 2016년 5월 15일, 5월 26일에 창덕궁 해설사가 제공하는 관람 해설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 관찰하고 녹취 및 채록을 하여 해설 내용, 해설 동선, 해설 및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창덕궁 해설 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보완되거나 신규로 도입되는 해설문은 창덕궁에 관련된 학술도서를 참조하여 작성을 시도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창덕궁의 관람 현황

1) 관람제도

창덕궁에 지금의 모습과 관람제도가 정착되는데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다. 문화재청이 관찰하여 처음으로 1954년 외국인에게 봄·가을 유료 공개, 1955년 일반인에게 유료로 궁궐을 공개하는 관람제도를 시행하고, 1976~1979년에는 무분별한 전면 개방공개로 인해 궁궐 훼손이 가속화되었다는 이유로 3년 동안 공개를 중단하고 창덕궁 및 후원 보수정화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후원의 일부 지역을 비공개로 보존하며 1979년부터 일반 유료 제한 공개로 관람제도를 전환하여 시행한 적도 있다.

이후 1991년에 본격적인 궁궐 복원사업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훌륭한 명원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이에 따라 보존과 활용이라는 증점에서 관람객들에게 창덕궁을 개방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4년 옥류천 특별관람 시행, 2006년 목요일 예약제에 따른 자유관람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관람제도 변화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는 전각 자유관람, 후원 제한관람제도를 통하여 전각과 후원 권역의 관람 및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12]. 2010년 5월 이후 창덕궁은 문화재 보호 및 생태적 보존 측면을 고려하여 휴궁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자유관람과 제한관람 제도를 병행하여 관람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궁궐 전각의 외부는 자유관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후원권역은 회당 최대 100명을 정원(인터넷 사전예약 50명, 현장접수 50명)으로 제한관람을 시행한다.

관람제도와 함께 제공되는 해설 프로그램은 전각 및 후원 권역 정규 해설과 2015년부터 특정시기에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와 같은 특별해설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별해설 프로그램은 궁궐 방문을 이미 경험한 관람객들을 위한 맞춤형 해설로 관람객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

어 문화재 3.0 시대의 흐름에 맞춘 문화재청의 해설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궁궐 해설사, 자원봉사 해설자(우리궁궐지킴이, 우리궁궐길라잡이), 여행사 가이드, 일반인 등 누구나 해설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체제이다. 창덕궁의 해설사는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관람객들에게 해설을 제공해주고 있다. 자원봉사자 해설자인 우리궁궐지킴이와 우리궁궐길라잡이가 금~일요일에 한국어 정규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어 해설은 개별적으로 접수되는 예약에 따라 제공하였다. 여행사가이드는 주로 외국인 단체관람객을 대상으로 여행일정(주로 오전시간대 방문)에 따라 궁궐을 방문하여 해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체험학습지도사는 궁궐이 체험학습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 궁궐을 방문하여 청소년 학습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적 성격의 해설활동을 하고 있다. 궁궐 해설사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포함한 다수의 해설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금~일요일에는 자원봉사해설자가 주로 해설활동을 행하고 있다.

2) 해설 동선 및 소요시간

관람 해설은 청소년 단체관람을 제외하고 인원제한 및 예약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창덕궁 해설사의 인수를 기준으로 한 관람동선 경로는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 있다. 보통 돈화문 일원을 시작으로 창덕궁 해설관-금전교-인정문-인정전-선정전-희정당-대조전-낙선재를 종점으로 약 1시간 이내의 해설이 진행된다(Figure 1). 관람 시작점인 창덕궁 해설관 앞에서 시간이 6분으로 다소 긴 이유는 관람코스 등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조전 후원에서의 해설시간이 약 6분으로 다소 길며 인정전 일대에서 약 11분이 소요된다(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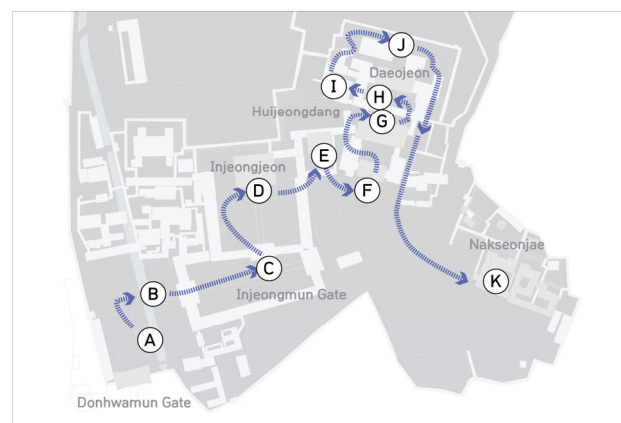


Figure 1. Present Commentary Place and Route

Table 1. Explanation Time

Mark	Place	Time(min. sec)			
		Commentary	Sighting	Move	Total
A	Information Board	6'00"	-	1'00"	7'00"
B	Geumcheongyo Bridge	3'00"	-	2'00"	5'00"
C	Injeongmun Gate	4'00"	-	1'00"	5'00"
D	Injeongjeon Hall	5'00"	-	1'00"	6'00"
E	Seonjeongjeon Hall	3'00"	-	1'00"	4'00"
F	Huijeongdang Hall	3'00"	0'30"	0'20"	3'50"
G	Huijeongdang -Daejojeon	0'30"	1'30"	0'30"	2'30"
H	Daejojeon Hall	3'00"	0'30"	0'30"	4'00"
I	Royal kitchen	2'00"	1'00"	0'30"	3'30"
J	Daejojeon Backyard	6'00"	-	3'00"	9'00"
K	The area of Nakseonjae	5'00"	-	-	5'00"
Total		40'30"	3'30"	10'50"	54'50"

3) 지점별 해설의 분석결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각권역 해설이 처음 시작되는 곳은 창덕궁 배치도 안내판이 위치한 A지점이다. 정해진 시간에 해설이 시작되고 인원제한이 없다. 창덕궁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배경, 역사, 규모, 배치 특성과 함께 돈화문이 문화재인 점과 과거에 종과 북이 달려있었다는 사실을 주된 해설의 내용으로 한다. 그 외 창덕궁 관람코스에 관해 간략한 설명을 한 후 금천교로 이동한다. 해설 6분에 금천교까지 이동 1분이 더해져 약 7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1997년에 유네스코에서 창덕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창덕궁이 지어진 것은 1405년 3대 태종 임금님 때 <중략> 규모가 46만 2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평으로 얘기하자면 14만여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의 3분의 2가 뒤에 있는 후원이고요. <중략> 산골짜기를 따라 배치되어서 약간 틀어진 배치형태를 취해요. **여러분 오른쪽 돈화문 창덕궁 정문을 지나 온 것인데 1412년에 지어진 것 <중략> 예전에 종하고 북이 달려있어서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여기 설명을 들으시고 금천교라는 돌다리를 지나시면 창덕궁의 정전인 2번 인정전을 보실 수 있으신데 국가의 행사나 의식을 치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엔 3번 선정전이 위치해 있는데 임금님의 집무실이구요. <중략> 마지막 공주이신 덕혜옹주 그리고 영친왕비이신 이방자여사가 1989년까지 제쳤던 공간입니다.”

- 해설 녹취자료 : 창덕궁 해설판 앞(A 지점) -

금천교(B 지점)에서는 금천교와 금천의 상징성, 다리 아래 두 개의 터널인 홍예, 동물모양의 석수에 관한 해설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인정전 일대에서는 인정문 앞(C 지점)과 인정문 월대(D지점)에서 해설이 진행된다. 인정문 앞에서 인정전, 인정문, 어도, 조회 및 조정, 품계석에 관한 해설이 4분 정도 소요되고, 1분 정도 인정전 월대 위로 이동하여 인정전 내부에 위치한 그림인 일월오악도와 근대문물에 관한 해설이 5분 정도 이루어진다. 해설 후에 선정전으로 이동하여 총 11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인정전, 인정문, 어도 등 공간의 핵심요소를 잘 파악하여 해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전 월대에서 진행되는 건물 내부의 일월오악도와 근대문물에 관한 해설은 중요도가 낮는데 비해 해설분량이 많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입니다. 국가의 주요한 행사와 의식이 이루어지는 곳 <중략> 왕이 즉위하시는 곳은 정전의 문입니다. <중략> 오른쪽, 동쪽에는 학자들이 문관이 서시고 왼쪽, 서쪽에는 군인들인 무관이 셉니다. 동쪽에 서시는 문관을 동반, 서쪽에 서시는 무관을 서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불러요.”

- 해설 녹취자료 : 인정문 앞(C 지점) -

“(인정전 내부를 가리키며) <중략> 일월오악도라는 그림인데 붉은색 태양은 왕을 상징하고 양을 상징하기도 해요. 반면 여성은 음이 되기도 하고 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비를 상징하는 달이 서쪽에 있고 5개의 산은 전체 국토의 70%가 산지였던 조선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거대한 폭포가 떨어지면서 파도가 생기고 끝에는 물이 되죠. 좁은 의미에서 파도조자가 조정의 조와 동음인 관계로 왕을 알현하는 신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본래 물이라는 것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중략> 내부에 상들리에 스타일을 보이는 전등이라던가, 커튼, 마룻바닥 이러한 것들은 1908년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1907년 마지막 순종황제가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에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창덕궁으로 옮겨 오신 거죠. **새 임금님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 최첨단 인테리어 설치를 안에 도입 <중략>**”

- 해설 녹취자료 : 인정전 월대(D 지점) -

선정전(E 지점)에서는 창덕궁 내에 남은 유일한 청기와 건물, 청기와에 사용된 안료인 회회청, 정희왕후 대리청정 이야기, 지붕과 관련된 사마토 기법, 지붕구조, 잡상에 관한 해설이 진행된다. 해설 시간은 6분 정도에 이른다. 정희왕후 대리청정 이야기가 다소 길게 이루어진다. 이외에 지붕 구조나 잡상은 이 공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한 재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략> 그 당시 아라비아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회라고 그곳에서 들어오는 특별한 수입안료인 회회청을 사용했고

요. <중략> 조선전기에 이 수렴청정으로 주변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이 정희왕후인데 이분이 바로 세종의 왕비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한자를 쓰진 못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신하들이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써줍니다. 그것을 읽고 판단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상당히 정치가로서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략> 추녀마루에는 잡귀를 쫓는 잡상이라는 장식재를 올렸는데 궁궐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식을 <중략>

- 해설 녹취자료 : 선정전(F 지점) -

희정당(F 지점)에서는 집무실 사용 내력, 돌출된 현관, 순종과 왕비의 자동차에 관한 해설이 3분 정도 이루어진다. 현관과 자동차에 대한 중요하지 않은 설명이지만 다소 장황하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 전통한옥은 현관이 없어요. 대부분 옛날 집은 신발을 벗으면 마루가 나오고 방이 나오죠. 이것이 일반적인 구조이고 이곳 희정당은 현관이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인데 이곳이 바로 왕의 주차공간입니다. 마지막 순종황제 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 자기용을 타셨어요. 자동차가 당시에는 외국에서 수입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캐딜락이라는 1918년경 모델 클래식이 옛날자동차니까 거의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왕이 타신 것이니까 값어치 배기 어렵겠죠? 이게 고궁박물관 지하1층에 전시가 되어있고 비슷한 시기에 왕비의 전용자동차 리무진을 구입하였는데 1914년경 모델로 굉장히 보기 드문 큰 규모의 리무진인데 두 대가 온전히 보관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고쳐줬어요. 아마도 맞춤형제작이니까 이 부속을 구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두 대를 고치는 수리비용만 20억 가까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복원해 준 거예요. 그 차가 이곳에 주차되었던 것이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고궁박물관에 가세요. 그럼 이제 희정당 내부 쪽 보이는 곳으로 가실까요?

- 해설 녹취자료 : 희정당(F 지점) -

대조전 일원에서는 희정당과 대조전 중간(G 지점)에서 두 건물을 연결하였던 복도에 관한 해설이 30초 정도 이루어진다. 이후 희정당 내부를 1분 30초 정도 관람한다. 이후, 대조전 건물 앞(H 지점)에서 무량각과 온돌방에 대한 설명과 관람이 진행된다. 이후 수라간(I 지점)에서 해설과 관람을 한 후 대조전 뒤편(J 지점)에서 경훈각과 아궁이, 굴뚝, 화계에 관해 6분 정도 해설이 이루어진다.

<중략> 건물들이 옆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도 건물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미로 같은 구조 <중략> 건축학적으로

저런 용마루가 없는 양식을 무량각이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넓은 방이고 온돌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곳곳에 아궁이가 많고요. <생략>

- 해설 녹취자료 : 대조전 앞(H 지점) -

“일반 시기의 굴뚝과 다르게 색도 있고 장식이 좀 많죠. 특히나 가운데 있는 판 보시면 위에 있는 새 두 마리는 학이고요. 밑에 좀 귀엽게 생긴 것은 사슴이에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을 새겨 표현을 한 것인데 궁궐은 상징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늘 으뜸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장수, 건강 이런 것이거든요. <중략> 굴뚝이 놓여 있는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정원의 일종인 화계 <생략>

- 해설 녹취자료 : 대조전 뒤편 (J 지점) -

낙선재 앞마당(K 지점)에서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로 연결되는 공간 구성, 관련인물인 현종과 경빈 김씨의 일화, 단청이 없는 낙선재, 귀갑 문양 벽돌담에 관한 해설이 5분 정도 진행되고 마무리된다. 낙선재 후원은 개방되지 않는다. 중요요소가 전반적으로 잘 해설되지만 관련 인물인 현종, 경빈 김씨 일화, 낙선재 거주 인물에 관한 해설은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귀갑문양 벽돌담에 관한 해설은 ‘장수’라는 핵심 내용이 누락되고 있다.

“<중략> 단청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왕의 어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사대 부가의 저택처럼 남아있습니다. <중략> 저기에 귀갑문양 보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과 함께 천년만년 오래사시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는데 바로 담장너머의 집주인이 그 대상이죠. 바로 후궁 경빈 김씨입니다. <중략> 어쩔 수 없이 흥씨와 혼인을 하게 되는데 3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 두고 있던 탈락한 후보인 김씨를 후궁으로 들여서 같이 지내면서 후사를 잇겠다고 지어진 공간이에요. <중략> 순종의 후사가 없어 결국 순종의 배다른 형제였던 영친왕이 후계자로 결정되고 황태제가 되었습니다. <중략>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아시고 젊은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 바로 영친왕의 비인 방자여사이십니다. 방자는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한 것이고 일본식으로는 마사코라는 이름이죠. <중략>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후 쯤에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죠. <생략>

- 해설 녹취자료 : 낙선재 일원(K 지점) -

4) 해설 요소 및 대상 분석결과

전각권역은 각종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집중되어 있어 건축물의 양식, 관련인물, 공간구성 등을 중심으로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각 지점별로 해설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다. 행사와 인물에 관련된 요소는 9분 47초(24.2%)

동안 다루지며, 건물은 16분 10초(39.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이룬다. 금천을 비롯한 조경요소는 7분 50초(19.9%)이며 자동차와 같은 기타 요소가 4분 20초(10.7%), 탐방코스 해설이 2분 23초(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A, D, E, F, G, H, I, J, K 등 9개 지점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는 것에 비해 조경요소는 B, C, J 등에서 편중되어 해설이 이루어진다 (Table 2).

또한 궁궐의 배치에 대해서 A지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지만, 궁궐의 공간구성에 해당하는 외조, 치조, 연조의 구분과 성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각 중심의 해설에 치중해서 지형이나 배수 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한편, 전통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이 매우 부족하다. 돈화문 앞에 설치되었던 홍마목과 하마석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금천의 누혈과 함께 인정전의 박석 포장, 차일고리, 드므와 부간주, 가림시설에 해당되는 판장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Figure 2).

대조전에서 왕비의 궁궐생활, 대조전 건물에 관련된 해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만 가장 많이 설치된 판장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다. 대조전 뒤편의 대규모 구조물인 화계에 대한 언급도 매우 부족하다. 또한 대조전 뒤편의 경관을 구성하는 괴석이나 다른 침전과의 차이점 등의 설명이 부족하다. 낙선재 누마루 밑에 특이한 문양으로 새겨진 문석대에 관한 해설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선사상이 반영된 괴석분과 석지 등 건축 및 조경의 요소가 어우러진 낙선재 후원에 관한 해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낙선재 후원의 개방에 대한 고려와 해설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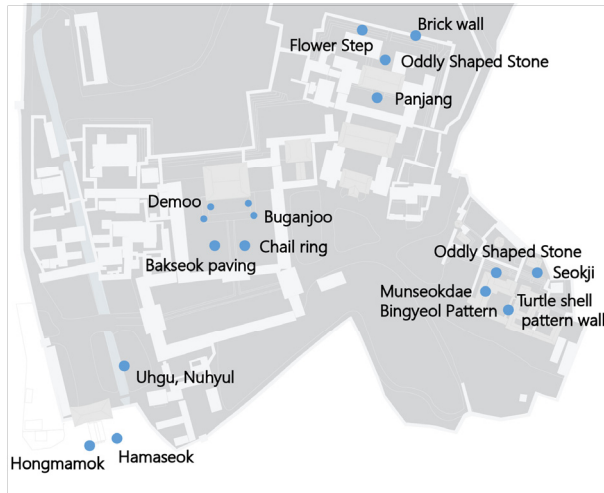
2. 창덕궁 해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 해설 대본의 지점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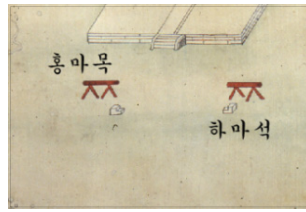
기존 해설 프로그램의 설명 내용과 동선, 지점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전통조경시설의 배치 특성을 이용하여 해설 대본을 개

Table 2. Commentary Time and Elements

Mark	Place	Commentary			Total
		Element	Time(min sec)	Ratio(%)	
A	Information Board	History	1 ' 45 "	29.4	6 ' 00 "
		Layout	1 ' 35 "	26.5	
		Building	0 ' 17 "	4.9	
		Tour Course	2 ' 23 "	39.2	
B	Geumcheongyo Bridge	Stream	0 ' 51 "	28.6	3 ' 00 "
		Circulation	0 ' 25 "	14.3	
		Bridge	0 ' 25 "	14.3	
		Sculpture	1 ' 19 "	42.8	
C	Injeongmun Gate	Ceremony	2 ' 20 "	58.3	4 ' 00 "
		Tablet	1 ' 00 "	25.0	
		Footpath	0 ' 40 "	16.7	
D	Injeongjeon Hall	Chamber	5 ' 00 "	100.0	5 ' 00 "
E	Seonjeongjeon Hall	Building	1 ' 50 "	61.3	3 ' 00 "
		Person	1 ' 10 "	38.7	
F	Huijeongdang Hall	Chamber	0 ' 47 "	26.4	3 ' 00 "
		Building	0 ' 28 "	15.8	
		Vehicle	1 ' 45 "	57.8	
G	Huijeongdang -Daejojeon	Building	0 ' 30 "	100.0	0 ' 30 "
H	Daejojeon Hall	Person	1 ' 00 "	33.3	3 ' 00 "
		Building	2 ' 00 "	66.7	
I	Royal Kitchen	Building	2 ' 00 "	100.0	2 ' 00 "
J	Daejojeon Backyard	Building	1 ' 50 "	30.4	6 ' 00 "
		Garden	4 ' 10 "	69.6	
K	The area of Nakseonjae	Building	1 ' 28 "	29.5	5 ' 00 "
		Person	3 ' 32 "	70.5	
Total			40 ' 30 "		40 ' 30 "



a. Location of Traditional Landscape Facilities



b. Hongmamok Hamaseok



c. Bingleol Pattern in Munseokdae



d. Panjang



e. Turtle Shell Pattern Wall

Figure 2. Potential Landscape Facilities for Commentary

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돈화문 앞 월대를 해설지점(① 지점)으로 신설하고 해설 대본을 제작하여 낭독을 실험한 결과 창덕궁 해설판 앞에서 제공되던 기존 돈화문에 관한 해설과 돈화문 앞 지형의 변화, 홍마목과 하마석에 관한 보충해설, 창덕궁 해설판 앞으로 이동을 포함해서 1분 45초 내에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효과적인 해설을 위해서 하마석과 홍마목의 재현물이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 신설된 해설안은 완전한 문장으로 구성을 시도하였으며 추가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창덕궁 정문 돈화문은 1412년에 지어진 것 <중략> 돈화문 앞에는 오늘날의 바리케이드와 같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마목이라고 하며 붉은 칠을 한 네발 달린 나무받침틀입니다. 홍마목이 있으면 앞에서 내리거나 일단 정지하라는 표시물입니다. 옆에 있는 하마석은 말을 타거나 내릴 때 발돋움으로 쓰려고 대문 앞에 놓는 큰 돌로 노뚝돌이라고도 불립니다[13]. 이 하마석은 실제로 쓰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돈화문 앞에 놓인 것이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신하들이 입궐할 때에는 궁 서쪽의 금호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14].”

- ① 지점(돈화문 앞)의 해설 신설안 -

창덕궁 해설판 앞(A 지점)에서는 ① 지점으로 이동시킨 돈화문에 대한 해설을 제외한다면 그 시간 내에서 궁궐 조영 및 공간구성에 관한 해설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궁궐의 공간구성에 기본이 되는 삼문삼조(三門三朝)에 대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설명을 부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천교까지 이동을 포함해서 약 7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천교에서는 동궐의 명당수 체계와 어구, 누혈 기능의 설명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

존의 해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 40~45초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정문에서 인정전으로 연결되는 동선에 궁궐의 전통포장시설인 ‘박석’과 ‘차일 및 차일고리’의 설명이 부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석에 대한 형상과 기능, 차일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면 40~45초의 시간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문 앞(C 지점)의 해설은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전 월대앞에서 ‘드므’와 ‘부간주’에 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정전(E 지점)의 해설에서는 정희왕후에 대한 설명을 1분 이내로 축소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희정당 현관(F 지점)에서 순종과 왕비의 자동차에 관한 해설에 해당되는 “마지막 순종황제 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 자가용을 타셨어요. <중략> 여러분의 세금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으로 복원해 준 거예요. 그 차가 이곳에 주차되었던 것이요” 부분을 제외한다면 1분 정도로 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

희정당-대조전(G 지점)에서 판장에 대한 설명의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희정당-대조전 일원은 창덕궁에서 판장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최근에 일부 복원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대조전 일원의 해설에서 경훈각, 화문장, 괴석 등을 포함하여 장소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훈각은 원형과 변화에 대한 설명과 대조전의 후원에서 괴분, 석분, 화계, 식재와 길상문자에 대한 해설이 보완되어도 30~35초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주택의 굴뚝과 다르게 색도 있고 장식이 좀 많죠. ...<중략>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을 새겨 표현을 한 것 ...<중략> 담장에 장수를 바리는 길상문자도 새겨져 있습니다[13]. 정원 한편에

배치된 괴석은 축소된 자연경관을 연출했습니다. 괴석들로 명산의 봉우리, 험준한 산줄기, 깊은 골짜기를 상징했습니다 [15].”

“인정전과 같은 정침의 앞마당에 식재를 하지 않았지만 부녀자를 위한 공간이어서 마당에 식재를 하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정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대조전 뒷마당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석축을 쌓은 후 화초와 수목을 심고 괴석과 석물로 장식했습니다. 화제의 벽이나 담장에 화려한 무늬를 새긴 벽돌을 쌓거나 화초문을 새긴 ‘꽃담’을 설치했습니다[16].”

- J 지점(대조전 후원)의 해설 개선안 -

낙선재 앞마당(K 지점)에서 낙선재 구성과 단청, 벽돌담 귀갑문양, 낙선재 누마루 밑의 문석대, 헌종과 경빈 김씨, 순원왕후, 이방자 여사 덕혜옹주 등의 거주인물 등에 대한 해설을 개선하면 이동시간까지 약 2분 정도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서 낙선재의 후원 권역을 개방한다면 괴석분과 석지의 설명이 가능해지며, 승화루와 한정당에서 후원과 상량정의 설명이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동산은 건물별로 담장에 의해 구분되어 있고 각각 점자를 하나씩 세워 낙선재 일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형의 정자는 현재 상량정(上凉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원래 이름은 평원루(平遠樓)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름이 바뀐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낙선재 후원과 승화루 후원을 연결하는 문은 둥근 달과 같다고 해서 만월문이라고 불립니다.

- ④ 지점(승화루)의 해설 개선안 -

“이 정자는 석복현의 후원에 세워진 한정당이라는 정자입니다. 전통 건축방식과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는데 유리창을 달았고 타일을 붙인 기단을 설치했습니다[16].”

2) 해설 시간과 동선의 개선안 도출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도출은 기존 지점에 대한 설명 내용의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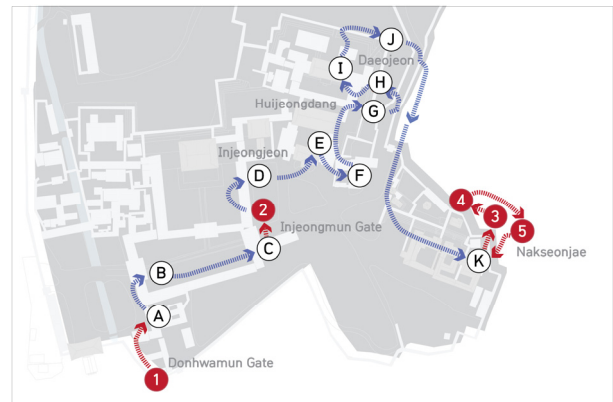


Figure 3. Improved Commentary Route (Number : Add point)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f Improvement of Commentary Program(Unit : min' sec")

Place	Name	Present				Improvement Plan				Changes
		commentary	Sighting	Move	Total	commentary	Sighting	Move	Total	
①	Donhwamun Gate	-	-	-	-	1' 15"	-	0' 30"	1' 45"	Established
A	Information Board	6' 00"	-	1' 00"	7' 00"	6' 00"	-	1' 00"	7' 00"	Modified
B	Geumcheongyo bridge	3' 00"	-	2' 00"	5' 00"	3' 45"	-	2' 00"	5' 45"	Added
C	Injeongmun Gate	4' 00"	-	1' 00"	5' 00"	4' 00"	-	0' 30"	5' 00"	Change
②	Injeongjeon yard	-	-	-	-	0' 45"	-	0' 30"	1' 15"	Established
D	Injeongjeon stereobate	5' 00"	-	1' 00"	6' 00"	5' 25"	-	1' 00"	6' 35"	Added
E	Seonjeongjeon	6' 00"	-	1' 00"	7' 00"	4' 45"	-	1' 00"	5' 45"	Reduced
F	Huijeongdang hallway	2' 00"	1' 30"	0' 20"	3' 50"	1' 00"	1' 30"	0' 20"	2' 50"	Reduced
G	Huijeongdang-Daeojeon	3' 00"	0' 30"	0' 30"	4' 00"	3' 50"	0' 30"	0' 20"	4' 00"	Added
H	Daejeon Hall	3' 00"	0' 30"	0' 30"	4' 00"	3' 35"	0' 30"	0' 30"	4' 00"	Supplement
I	Royal kitchen	2' 00"	1' 00"	0' 30"	3' 30"	2' 00"	1' 00"	0' 30"	3' 30"	Unchanged
J	Daejeon Garden	6' 00"	-	3' 00"	9' 00"	6' 35"	-	3' 00"	9' 35"	Added
K	Nakseonjae yards	5' 00"	-	Finish	5' 00"	1' 40"	-	0' 20"	2' 00"	Reduced
③	Nakseonjae garden	-	-	-	-	0' 30"	-	0' 30"	1' 00"	Established
④	Sangnyangjeong -Seungwharu	-	-	-	-	0' 30"	-	0' 30"	1' 00"	Established
⑤	Hanjeongdang	-	-	-	-	0' 10"	-	Finish	0' 10"	Established
	Total	45' 00"	3' 30"	10' 50"	59' 20"	45' 45"	3' 30"	12' 30"	61' 45"	2' 25" added

및 첨삭, 신규 지점에 대한 설명 내용 제작으로 이루어졌다 (Figure 3). 이와 함께 해설지점에서 접근성과 설명 요소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전통조경시설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포함하였다. 해설 프로그램은 최대한 기존 해설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현재 운영되는 체제에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해설 내용에 대해서는 대본을 작성하고 녹취된 해설자의 설명 속도를 반영하여 낭독을 통해 소요시간을 측정하였다. 해설지점의 추가와 동선의 변경에 따른 이동 및 관람 시간은 기존 해설시간을 참고하고 현장에서 측정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수정된 해설 동선 및 시간, 전통조경시설물 위치를 확인하여 개선된 해설 대본으로 실험한 결과 현재 해설시간에서 약 3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Table 3). 측정을 통해서 해설 항목에 대한 간결하고 효과적인 설명 대본을 작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설지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이다. 해설 시작 지점을 기존 창덕궁 배치도 안내판 앞에서 돈화문 앞 월대로 변경하고, 인정전에서 인정전 마당을 동선에 추가하고 해설의 종점 구역인 낙선재 뒷마당과 후원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궁궐의 외부공간에서 중요한 경관요소가 되는 조경시설에 대한 설명 가능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해설에 포함하는 것이다. 셋째, 기존 해설시간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장소별로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된 해설 내용의 분량을 줄이거나 제외하고, 보충이 요구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돈화문 월대, 인정전 앞, 낙선재 후원에 지점을 추가함으로써 전각권역의 원림에 대한 해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덕궁 해설판은 돈화문 월대와 해설을 분리하고 금천교, 인정전 월대, 회정당-대조전, 대조전 후원 등에서 조경요소에 대한 해설의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창덕궁의 전각권역을 대상으로 해설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건물과 이와 관련된 인물, 역사에 관한 사실과 일화가 해설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해설 동선에 따라 배치된 건물과 외부공간 특히 전통조경시설에 관한 해설이 매우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해설과 관람 개방이 필요한 구역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해설지점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해설의 수정을 통해서 권역 외부공간과 전통조경시설의 해설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에 대해서 기존 해설과 동일한 속도로 낭독실험을 거쳐서 소요시간의 적절성과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개선안이 현행 해설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1시간 내에서

시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도입될 수 있는 해설 프로그램의 제안으로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해설 정보와 보다 더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통조경시설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부공간과 전통조경시설에 대한 해설의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인물과 생활상에 대한 내용을 최소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설명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저감하고자 노력하였다. 추후에 인물과 생활상에 대한 해설 가능요소를 발굴하여 다양한 문화 자원이 균형을 이루는 해설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설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해설자와 이용자의 참여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Park, S. H.(1994). Tourism Resources Interpretation System : The Case of Secret Garden in Seou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8(1): 43-69.
- [2] Kang, M. S.(2006). Landscape Interpretation Plan for Changdeok Palace, Seoul, Korea, Based on the Ten Sceneries of 'Sanggrimship-kyong' Poem - With the Application of 'Narrative'. Master Thesis of Seoul University.
- [3] Lee, J. W.(2016). A study on the status and improvement of the interpretation for rear garden at Changdeok Palace. Master Thesis of Korea University.
- [4] Sin, J. E.(2005). Educational effect on visitors of Heritage site : In case of Changduk Palace. Master Thesis of Kyonggi University.
- [5] Kang, N. H.(2009). Education of World Heritage Using Perspectiv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ESD)-Teaching Plan on the Changdeok Palace-. Master Thesis of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6] Choi, W. J.(2016). The Program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Green-building education through Changdeokgung Palace. Master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 [7] Jang, M. J.(1999). Effects of The Palace Visitors' Expectation and Involvement on Satisfaction. Master Thesis of Kyonggi University.
- [8] Kim, Y. M. and Kim, J. E.(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ective Properties for Cultural Heritage Sites on Visitor Satisfaction: A Focus on Changgyeong Palace.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5(3):237-253.
- [9] Lee, C. G.(2013).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cultural heritage of palaces and jongmyo as tourism resources : focusing on the application plan of Gyeongbokgung palace, Changdeokgung palace, changgyeonggung palace, Deoksugng palace and Jongmyo. Master Thesis of Jungang University.
- [10] Moon, Y. S.(2015). The User Perceptions of the Old Palace for Continuous Use of the Old Palace(Focusing on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Old Palace Program). Master Thesis of University of Seoul.

- [11] Kim, H. J.(2008). A Study on Development Direction of Cultural Assets Focus on Gyeongbok Palace Mobile Information Guide. Master Thesis of Hanyang University.
- [12] <http://www.cha.go.kr/newsBb>

원 고 접 수 일: 2018년 11월 11일
심 사 일: 2018년 12월 6일 (1차)
: 2018년 12월 11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8년 12월 11일
4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